

해외 파견대학	영국 / 울버햄튼	해외파견대학 전공	X
파견기간	☒ 1학기 ☐ 1년		
학기 시작일	2026/01/12	학기 종료일	2026/05/16
출국일	2026/01/11	귀국일	2026/05/20
1.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수업	이수과목	1학기	English in Context1 Bigger than the Beatles:The Power of Pop Culture Solid Mechanic and FEA
		2학기	
	수업방식	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	
	시험방법	레포트 제출, 지필시험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고학년의 수업을 들으면 외국인으로써 따라가기 힘들 수 있음.	
	그 외 활동 (해당되는 경우 작성)	동아리	
문화프로그램			
기타			
교내편의시설	세탁실,도서관,대형마트,관리실		
2. 귀국 준비			
기숙사/숙소 (기숙사참고사항,퇴실 절차, 납부방법 및 시기)	기숙사 퇴실절차; 리셉션에 키 반납하고 퇴실하면 됨. 납부; 학비와 함께 학기 시작 전에 계좌이체		
각종 해지 사항 (보험, 은행 등)	보험은 기간에 따라 자동 정지. 현지 계좌의 잔액 옮기기.		
기타참고사항			



3. 소감문 (1페이지로 작성, 맑은 고딕, 10포인트, 왼쪽 정렬)

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캠퍼스, 주변환경 등)	1인1실이며 개인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장점. 도서관이 꽤 잘되어있기에 도서관 이용 추천. 가까운 곳에 헬스장과 대형마트가 있음. 도보 10분-20분에 공원과 기차역, 시내가 있음.
날씨, 숙소, 식사, 비용(물가) 등에 대한 정보	비가 많이 오니 우산 필수. 식사는 보통 학교 내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봐서 직접 해먹음. 물가는 한국의 1.5배~2배이지만 식료품값(과일,채소,고기 등)은 한국과 비슷함. 공용 주방과 공용 세탁실을 사용하며 세탁기, 건조기 각각 약 5000원.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정보	주로 하나은행의 트래블 로그 사용하였으나 마지막 달에 카드 복제를 당하여 트래블월렛 사용. 환율이 더 싼 트래블로그를 추천.(1파운드에 10~15원 정도 차이남) 트래블카드 찍고 버스나 지하철 탈 수 있음. 기차는 트레인팔, 트레인라인 어플에서 티켓 구매 후 개찰구에 큐알 찍어서 이용. 현지 유심 레바라 이용(온라인 신청 후 배송 가능, 거의 모든 유럽국가에서 로밍 필요없이 사용하는 데이터 플랜에서 데이터 이용 가능)
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 문화충격 등	사전에 원하는 강의를 생각하여 갔지만 열리지 않는 강의가 있었고 학기가 달라 수강하지 못하는 강의가 있어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음. 미리 최대한 많은 과목의 전공인정가능여부를 학과 조교님과 상의하고 출국 추천.
파견교 국제교류부 (진행되는 프로그램, 도움받았던 내용 등)	오티 참여 필수. 오티에서 궁금하던 것이 모두 해결되었으며 헛갈리는 부분을 따로 질문을 할 수도 있어 오티가 많은 도움이 되었음.
파견교환학생 관련 건의사항 또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상비약 많이 챙겨가기. 늦은 시간 혼자 돌아다니지 않기. 파견교의 프로그램이나 소사이어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소매치기 조심하기. 안전이 제일 중요!!

해외 파견대학	영국 / 올버햄튼대학교	해외파견대학 전공	
파견기간	☒ 1학기 ☐ 1년		
학기 시작일	2026/01/15	학기 종료일	2026/05/15
출국일	2026/01/11	귀국일	2026/06/14
1.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수업	이수과목	1학기	Server Management and Virtualisation Computational Mathematics Algorithms and Concurrency
		2학기	
	수업방식	강의 및 실습	
	시험방법	온라인 시험(사지선다형 문제), 과제 제출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과목을 바꿀 때는 일단 파견교의 교환학생 담당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후 ask팀에 찾아가서 과목 변경한다고 말해야 변경할 수 있다.	
그 외 활동 (해당되는 경우 작성)	동아리	X	
	문화프로그램	X	
	기타	X	
교내편의시설	카페, 도서관, 라운지 등		
2. 귀국 준비			
기숙사/숙소 (기숙사참고사항,퇴 실 절차, 납부방법 및 시기)	기숙사는 학비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하는 형식이며, 개인 화장실+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방은 공용으로 본인 포함 6명이 사용한다. 퇴실 절차는 키 받은 곳에 그대로 열쇠를 반납하면 된다. 다만, 주말에 반납한다면 리셉션 근무 직원들이 없으므로 보안팀 직원에게 연락해서 퇴실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각종 해지 사항 (보험, 은행 등)	학기 초반에 동아리 박람회에서 나눠준 영국 유심을 사용하다가 출국하는 시기에 맞춰서 해지했다. 보험은 설정한 기간에 맞춰 자동으로 해지됐다.		
기타 참고 사항	귀국 택배를 보낼 때는 여러 업체가 있으므로 여러 곳에 문의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보통 픽업서비스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3. 소감문 (1페이지로 작성, 맑은 고딕, 10포인트, 왼쪽 정렬)

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캠퍼스, 주변환경 등)	수업은 대부분 시티 캠퍼스에서 진행함. 수업 신청할 때 보면 다른 지역 캠퍼스에 가셔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기차값은 본인 부담이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약 15-20분 정도 걸린다. 근처 마트로는 asda, home bargain, iceland 마트가 있다. 세일 품목이 좀 달라서 비교해보고 사는 것도 좋다. 학교를 지나 더 나가면 시내에 있는데, 시내로 나가면 쇼핑몰, 카페, 음식점들이 있다.
날씨, 숙소, 식사, 비용(물가) 등에 대한 정보	1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영국에 있었는데, 겨울에 가서 그런지 초반에는 비가 자주 왔지만, 3월쯤부터는 해가 짙은 날이 많았다. 날씨가 좋다가도 금방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다. 4-5월에도 전기장판을 틀고 자기도 해서 가져가는 걸 추천한다. 1-2월에는 대부분 오후 4시면 해가 지며, 4-5월부터는 오후8-9시쯤에 해가 졌다. 그리고 외식 물가가 비싸다보니 울버햄튼에서는 대부분 직접 요리해서 먹었다. 참고로 런던에서는 한번 외식할 때 약 25파운드 정도 나왔다.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정보	기숙사에서 약 20-25분 정도 걸어가면 울버햄튼 기차역이라서 좋았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기차를 이용하여 가는 것이 편리하다. 기차값이 비싸서 학생 할인으로 railcard를 발급받아 돌아다니는 게 이득이다. 그리고 유심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박람회 같은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무료로 유심을 나눠줘서 좋았다. vodafone 통신사였는데, 학생 전용 요금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gym 다닐 사람은 영국 계좌가 필요할텐데, 통장은 monzo나 revolut를 보통 많이 발급받아서 다니는 것 같았다. 체육관을 안 다닐 사람이라면 굳이 영국 계좌가 필요한 경우가 없었다.
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 문화충격 등	사전에 영어 회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공부하고 오는 걸 추천한다. 그리고 해외 결제 카드 2개 이상 가져오는 걸 추천(분실의 위험성). 사전 조사로 울버햄튼에 흑인 비율이 높다는 걸 알고 가서 대부분 괜찮았다. 추가로 학교 교수님들이 모두 영국식 영어를 구사하는 게 아니라 인도 억양의 영어를 구사하셔서 알아듣기 힘들 때도 있었다. 또한, 캠퍼스에서 친구를 사귀고 싶거나 영어 실력을 향상하고 싶다면 어떤 동아리라도 들어가는 걸 추천한다.
파견교 국제교류부 (진행되는 프로그램, 도움받았던 내용 등)	영국에 도착하고 첫 주는 적응하는 주라서 한국인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ot를 진행한다. 택배 받는 곳 등 여러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가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학교에 도착하면 그 학교에 내 신상을 등록하는 절차를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ask팀에 자주 방문했었다. 학기 초반에는 신상 등록 절차와 수강신청으로 ask팀을 다른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줄이 꽤 길고 시간이 조금 걸린다.
파견교환학생 관련 건의사항 또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울버햄튼이 생각보다 조금 작은 동네라서 할 게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동네를 돌아다니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하고 좋은 동네입니다. 만약 심심하다면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이 어떨까요?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갔는데, 다른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낭만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말할 때 굳이 문법 다 지켜가면서 말 안 해도 대충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아들으니까 겁먹지 말고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해외 파견대학	영국 / 울버햄튼대학	해외파견대학 전공	경영학과
파견기간	☒ 1학기 ☐ 1년		
학기 시작일	2026/01/19	학기 종료일	2026/04/27
출국일	2026/01/10	귀국일	2026/06/28
1.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수업	이수과목	1학기	4BU017 / The Digital Business 4EG001 / English in Context
		2학기	
	수업방식	두 수업 모두 한국의 수업 방식과 유사했습니다.	
	시험방법	두 수업 모두 시험은 진행되지 않았고 성적은 과제로만 평가되었습니다.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다음 학기부터는 한 학기당 수업을 두 개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업 리스트에는 적혀있지만, 개강하지 않는 수업도 많습니다.	
그 외 활동 (해당되는 경우 작성)	동아리		
	문화프로그램		
	기타		
교내편의시설			
2. 귀국 준비			
기숙사/숙소 (기숙사참고사항,퇴 실 절차, 납부방법 및 시기)	저는 기숙사 기간을 연장했기에 6월 27일에 퇴소했으며 기숙사는 1인실로 개인 샤워 부스가 딸려있습니다. 퇴실 전에 학교에서 미리 공지와 메일을 보내줄텐데 안내대로 짐을 모두 정리하고, 리셉션에 키를 두고 퇴실하시면 됩니다.		
각종 해지 사항 (보험, 은행 등)	딱히 해지할 것은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	캐리어가 무거우니 아무래도 우버나 볼트를 부르실텐데 하필 귀국 당일만 안 잡힐 수도 있으니 공항으로 출발하실 때 변수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텀을 두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소감문 (1페이지로 작성, 맑은 고딕, 10포인트, 왼쪽 정렬)

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캠퍼스, 주변환경 등)	기숙사는 1인실에 개인 화장실과 샤워부스가 함께 있고 공동 주방이 따로 있는 구조입니다. 샤워기는 벽에 붙어있기에 샤워기 필터를 챙겨가셔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울버햄튼은 작은 마을 느낌이기에 아무 일정 없는 날에는 다른 지역을 많이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날씨, 숙소, 식사, 비용(물가) 등에 대한 정보	날씨는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며 흐린 날들이 많습니다. 식사는 기숙사에서 제공해주지 않기에 근처에 있는 아스다 라는 마트에서 장을 봐 요리를 해 먹는 것이 지출을 줄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가는 개인적으로 한국보다 약 두 배 정도 높다고 느껴졌습니다.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정보	영국의 버스와 지하철은 한국과 똑같이 카드를 탭하는 형식이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환율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몬조 카드를 발급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영국에 도착한 뒤 앱을 깔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 내에서 기차를 많이 타실 계획인 분들께서는 기차 값을 할인 받을 수 있는 Railcard를 발급 받으신다면 돈을 더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앱을 통해 구매한 뒤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 문화충격 등	제가 듣고 싶었던 수업들이 개강하지 않아 당황했지만 어찌저찌 다른 수업을 찾아, 잘 들었습니다. 외국이라고 해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화충격을 받은 점은 없었습니다. ETA 비자는 신청하기도 간단하고 발급 받는 것 또한 얼마 걸리지 않기에 사전 준비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파견교 국제교류부 (진행되는 프로그램, 도움받았던 내용 등)	딱히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파견교환학생 관련 건의사항 또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소매치기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울버햄튼 같은 소도시는 그래도 괜찮지만 런던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도난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꼭 언제나 물건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해외 파견대학	영국 / 울버햄튼	해외파견대학 전공	
파견기간	☒ 1학기 ☐ 1년		
학기 시작일	2025/01/21	학기 종료일	2025/05/08
출국일	2025/01/11	귀국일	2025/06/05
1.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수업	이수과목	1학기	Health, Society & Culture English in Context The story of English
		2학기	
	수업방식	대면. 토론을 많이 하며 나의 의견을 교수님께서 많이 물어봄. 참여형 수업.	
	시험방법	리포트 제출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수강신청 변경은 도서관 내부에 위치한 IT센터에서 담당자와 직접 진행해야 함. 변경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수강신청 전 과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함.	
그 외 활동 (해당되는 경우 작성)	동아리		
	문화프로그램		
	기타		
교내편의시설	식당, 도서관, 카페, 라운지 등.		
2. 귀국 준비			
기숙사/숙소 (기숙사참고사항, 퇴실 절차, 납부방법 및 시기)	기숙사는 학교에서 자동 배정됨. 한 플랫에 총 6명이 함께 생활하며 개인 방에는 침대, 책상,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으며, 주방은 공동으로 사용함. 주방에 개인별 캐비닛이 제공되어 식료품 및 개인 물품 보관 가능함. 퇴실 시 기숙사 리셉션에 방 열쇠를 반납하면 퇴실 완료됨. 기숙사비는 출국 전 학비와 함께 함께 일괄 납부함.		
각종 해지 사항 (보험, 은행 등)	보험 :기간 만료 후 자동 해지. 은행 :현지 은행 사용 안함. (트래블 로그 사용) 인터넷 쇼핑으로 아마존 가입 후, 해지		
기타참고사항	항공권은 성수기에는 가격이 크게 오르므로 미리 예매하는 것이 좋음. 면세 한도와 수하물 무게를 미리 확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3. 소감문 (1페이지로 작성, 맑은 고딕, 10포인트, 왼쪽 정렬)

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캠퍼스, 주변환경 등)	기숙사와 학교가 가까워 도보로 통학하기 편리했으며, 수업 전후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어 생활하기에 매우 편리했음. 또한 도보 거리에 대형마트와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어 식료품과 생필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었으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었음. 캠퍼스 주변에 공원이 있어 운동이나 산책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기 좋았고,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안전한 분위기여서 학업과 생활에 모두 만족스러운 환경이었음. 캠퍼스 내 도서관과 학생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공부와 과제 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음.
날씨, 숙소, 식사, 비용(물가) 등에 대한 정보	울버햄튼은 초반에는 비가 거의 매일 내릴 정도로 날씨 변화가 잦아 우산이나 방수 기능이 있는 옷을 항상 준비하는 것이 좋음. 숙소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관리되어 생활하기에 만족스러웠으며, 기본적인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큰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었음. 다만 영국의 물가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외식을 자주 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음. 따라서 대부분의 식사는 직접 장을 보고 요리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형마트를 이용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어 생활비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정보	출국 전 자주 복용하는 상비약을 충분히 준비해 가는 것을 추천하며,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함. 은행은 현지 시중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한국에서 발급해간 트래블카드를 이용해 일상생활과 결제를 하는 데 큰 불편이 없었음. 교통은 기차 앱을 설치해 예매하면 영국 내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와 유럽 여행 시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음. 통신은 대부분 현지 유심을 구매해 사용했으며, 데이터와 통화 이용에 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었음.
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 문화충격 등	출국 전에는 영국 생활이 다소 불편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미리 정보를 충분히 찾아보고 준비한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었음. 다만 영국은 한국보다 상점의 영업시간이 짧고, 서비스 속도가 비교적 느린 편이라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졌음. 또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음.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으며, 교환학생 생활의 의미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었음.
파견교 국제교류부 (진행되는 프로그램, 도움받았던 내용 등)	파견교에는 별도의 국제교류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과 안내를 통해 교환학생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음. 현지에서는 모든 상황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출국 전 기본적인 회화와 일상 표현을 충분히 익혀가는 것을 추천함. 영어 실력이 좋을수록 수업을 이해하고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친구를 사귀고 현지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음. 따라서 출국 전 영어 회화 연습을 꾸준히 해두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파견교환학생 관련 건의사항 또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교환학생은 학업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친구들을 만나 교류하는 과정에서 얻는 배움이 더욱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함. 특히 유럽에서 교환학생을 하는 만큼 다양한 국가를 직접 여행하며 각 나라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함. 처음에는 방에서 쉬고 싶은 날도 많겠지만, 가능한 한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음. 이러한 경험들은 영어 실력 향상은 물론 시야를 넓히고 자신감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며, 교환학생 기간을 더욱 의미 있고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해외 파견대학	영국 / 올버햄튼	해외파견대학 전공	경영학과
파견기간	☒ 1학기 ☐ 1년		
학기 시작일	2026/01/19	학기 종료일	2026/05/15
출국일	2026/01/10	귀국일	2026/06/21
1.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수업	이수과목	1학기	Digital Business English in context
		2학기	
	수업방식	Digital Business의 경우 강의식 수업입니다. English in context의 경우 참여형 수업으로 주위 파트너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편입니다.	
	시험방법	두 과목 모두 레포트 제출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수강 신청을 변경할 경우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일처리가 느려 답답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잘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 외 활동 (해당되는 경우 작성)	동아리		
	문화프로그램		
	기타		
교내편의시설	카페, 교내식당, 매점, 자판기, 컴퓨터, 복사기		
2. 귀국 준비			
기숙사/숙소 (기숙사참고사항,퇴 실 절차, 납부방법 및 시기)	기숙사 퇴소할 날짜를 미리 이메일로 보내고 짐을 다 뺀 후 사무실에 반납하면 됩니다. 사무실이 닫힌 경우 security에 연락하면 뺄 수 있어서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각종 해지 사항 (보험, 은행 등)	사용하고 있는 유심(voxi) 해지		
기타참고사항			



3. 소감문 (1페이지로 작성, 맑은 고딕, 10포인트, 왼쪽 정렬)

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캠퍼스, 주변환경 등)	런던에 비해 치안이 좋지만 저녁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큰 마트들(Asda, Homebargains, Iceland)을 제외하고는 걸어서 15분이상 가야합니다. 시골이라 없는 것이 많지만 인근 도시인 버밍엄에 많은 시설이 갖춰져 있어 자주 가면 큰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까지 멀지 않아서 공부하기 좋으며 버밍엄 도서관이 예쁘니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날씨, 숙소, 식사, 비용(물가) 등에 대한 정보	날씨는 바람이 많이 부는 편입니다. 비교적으로 겨울 날씨가 길고 추우니 전기장판을 가져오는 것을 꼭 추천합니다. 1~2월에는 해가 매우 짧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6월이 되면 해가 엄청 길어지니 그 시기에 많이 여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가의 경우 고기와 채소류가 매우 저렴하니 외식보다는 거의 요리해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버밍엄에 한인마트도 있으니 한식을 해 먹기도 매우 좋습니다.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정보	따로 병원을 이용해보본적은 없으며 은행의 경우 시내로 나가면 매우 많습니다. 우체국 ATM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 없이 현금을 뺄 수 있습니다. 교통 같은 경우 기차를 가장 많이 타게 되는데 앱이 다양하니 그 중 하나를 선택해서 Rail card를 구매하면 보다 저렴하게 기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밍엄은 트램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는데 트램의 경우 미리 티켓을 구매하지 않고 탑승 후에도 구매 가능합니다. 통신은 vodafone을 사용하였는데 75기에 12파운드 정도로 이용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장점이 유튜브와 sns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단점은 가끔 유럽 로밍을 할 경우 데이터가 오류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 문화충격 등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 한국 제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미리 여유분을 많이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1~2월에는 해가 8시 넘어서 뜨고 오후 4시 쯤에는 지기 때문에 많은 활동이 어렵고 실제로 밖에 사람도 거의 없으며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날씨도 자주 흐리기 때문에 우울해지기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해도 많이 길어지고 날씨도 좋아지니 그 시기를 잘 넘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에 물건들을 꺼내 놓을 경우 공용의 것으로 착각하고 사용할 수 있으니 마련된 사물함에 넣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길거리에 담배 피는 사람이 많고 노숙자들도 많습니다.
파견교 국제교류부 (진행되는 프로그램, 도움받았던 내용 등)	따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나마 가끔 International Fair와 같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긴 합니다.
파견교환학생 관련 건의사항 또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생각보다 주어지는 자유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시간에 많이 여행하고 많은 것을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회화의 경우 미리 연습하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리스닝은 금방 늘지만 스피킹은 빠르게 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연습하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친절하다고 느껴서 너무 겁먹거나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부끄러워하기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잘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파견대학	영국 / 울버햄튼 대학	해외파견대학 전공	미정
파견기간	☒ 1학기 ☐ 1년		
학기 시작일	2026/01/16	학기 종료일	2026/05/16
출국일	2026/01/10	귀국일	2026/05/24
1.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수업	이수과목	1학기	1. Current Issu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2. English in Context 3. Bigger than the Beatles: The power of Pop Culture
		2학기	X
	수업방식	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	
	시험방법	레포트 대체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대부분 발표를 많이 시키는 편이라 회화 연습을 어느정도 해 가야하 고 수업 때 집중해야 참여할 수 있음	
그 외 활동 (해당되는 경우 작성)	동아리	X	
	문화프로그램	X	
	기타	X	
교내편의시설	도서관, 카페		
2. 귀국 준비			
기숙사/숙소 (기숙사참고사항,퇴 실 절차, 납부방법 및 시기)	기숙사에 처음 들어가서 흠집이나 파손된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진을 찍어두면 좋을 듯 함. 퇴실 절차는 따로 없었고 귀국 날짜에 맞추어 키를 리셉션에 반납하고 가면 됨		
각종 해지 사항 (보험, 은행 등)	몬조라는 계좌를 개설했지만 사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해지 할 필요는 없었고 유심같은 경우는 레바라라는 통신사를 이용했고 한국 와서 다시 한국 유심으로 바꿈		
기타참고사항	X		



3. 소감문 (1페이지로 작성, 맑은 고딕, 10포인트, 왼쪽 정렬)

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캠퍼스, 주변환경 등)	올버햄튼은 런던과 다르게 넓은 동네가 아니라서 조용하고 노후화된 시설도 꽤 있다. 하지만 변화가보단 안전하고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은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딱히 없었다. 학교와 기차역도 가까워서 근교는 거의 다 기차로 이동 가능했다. 학교 자체는 평범했다 도서관도 잘 되어있고 기숙사도 관리가 잘 되어있는 편이다.
날씨, 숙소, 식사, 비용(물가) 등에 대한 정보	영국답게 날씨는 기대하면 안 된다. 비가 오다가 해가 뜨다가 날씨가 자기 맘대로다. 우산은 꼭 하나씩 챙겨다니면 좋을 것 같다. 식사 같은 경우에는 외식을 하게되는 경우 햄버거 세트만 해도 한화로 2만원이 넘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직접 해 먹는 것을 추천한다. H마트에서 온라인으로 시킬 수도 있고, 버밍엄에서 한인마트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필요한 양념이나 재료는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국 자체가 물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어느정도 감안해야 한다.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정보	은행같은 경우에는 몬조계좌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헬스장이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좋고 교통은 Train pal 이라는 앱을 깔아서 기차를 쉽게 예약할 수 있다. 통신은 레바라 라는 통신사를 사용했는데 가격도 괜찮고 빠르기 때문에 잘 이용했다.
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 문화충격 등	1월부터 6월까지의 유럽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많이 가져갔다가 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장 겹쳐입을 생각으로 얇은 옷과 자켓들 그리고 편한 후드 종류를 챙겼다. 패딩이나 경량패딩은 필수로 챙겼으면 좋겠다. 영국은 일단 해가 잘 뜨지 않고 5월 초까지는 바람도 많이 불고 추웠다. 딱히 문화충격은 받지 않았던 것 같다. 사람들이 대부분 친절하고 눈을 마주치면 웃어주었다.
파견교 국제교류부 (진행되는 프로그램, 도움받았던 내용 등)	영어 수업에서 올버햄튼 대학교 학생회 친구들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다. 말도 먼저 걸어주고 친구들도 소개해줘서 다른 나라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었다.
파견교환학생 관련 건의사항 또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 겁 먹지 마시고 뭐든 차분한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교환학생 생활과 다를 수 있는데 실망하지 마시고 경험하고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니 초조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 파견대학	영국 / 올버햄튼대학교	해외파견대학 전공	통계학과
파견기간	☒ 1학기 ☐ 1년		
학기 시작일	2026/01/19	학기 종료일	2026/05/16
출국일	2026/01/11	귀국일	2026/05/31
1.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수업	이수과목	1학기	English in Context Quantitative Analysis Cloud Systems
		2학기	
	수업방식	일반 강의 형식, 실습	
	시험방법	과제 대체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수강 과목 변경 방법 복잡함.	
	그 외 활동 (해당되는 경우 작성)	동아리	
문화프로그램			
기타			
교내편의시설	카페, 도서관		
2. 귀국 준비			
기숙사/숙소 (기숙사참고사항,퇴실 절차, 납부방법 및 시기)	기숙사비는 학기 시작 전에 등록금과 함께 납부 퇴실할 때 방 깔끔하게 치우고 열쇠 accomodation hub에 반납		
각종 해지 사항 (보험, 은행 등)	보험 만기일에 자동 해지		
기타참고사항			



3. 소감문 (1페이지로 작성, 맑은 고딕, 10포인트, 왼쪽 정렬)

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캠퍼스, 주변환경 등)	올버햄튼 대학교는 여러 개의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견학생들은 대부분 City Campus에서 수업을 수강하였다. 학교, 기숙사 주변에 asda, home bargain 등 여러 마트가 있어 생활용품과 식재료를 구입하기 편리하였다. 또한 주변에 헬스장과 공원도 위치하고 있다. 올버햄튼 시내까지는 도보 약 20분 정도로 갈 수 있다.
날씨, 숙소, 식사, 비용(물가) 등에 대한 정보	영국은 주로 날씨가 흐린 날이 많고 비가 자주 내렸다. 5월에 예상보다 기온이 크게 올라 잠시 엄청 더워졌던 때가 있었는데 기숙사에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생활하기 다소 불편하였다. 또한 창문을 열면 벌레가 많이 들어왔고 기숙사 내부에서도 벌레가 자주 보여 벌레 퇴치제를 미리 준비해 오는 것을 추천한다. 환율이 1파운드당 약 1900원에서 2000원 수준으로 높아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외식 비용도 한 끼에 기본 2만 원 이상이 드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학교 근처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입하여 기숙사에서 직접 조리해 식사를 해결하였다. 한국 식재료들은 버밍엄 oseyo(올버햄튼에서 가장 가까운 한인마트)에서 구입 가능하다.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정보	기숙사에서 올버햄튼 기차역까지는 도보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올버햄튼에서 런던까지 기차로 약 2-3시간이 걸리며, 맨체스터와 버밍엄 등 인근 도시로도 이동하기 편리한 위치였다. 공항은 주로 버밍엄 공항을 이용하였으며 올버햄튼에서 기차로 약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학교 건물이나 기숙사에서는 인터넷 연결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지하철에서는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통신은 현지 유심(Lebara)을 사용하여 큰 불편 없이 이용하였다. 카드는 toss카드 사용했으나 최근 해외 결제 시 수수료가 붙어서 다른 카드를 추천한다.
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 문화충격 등	영국 식당에서 종종 밖에서 서서 먹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유럽은 우리나라에 비해 사람들이 더 여유로워 보였다.
파견교 국제교류부 (진행되는 프로그램, 도움받았던 내용 등)	Bar Crawl - 학교 근처에 있는 bar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학생들끼리 친목 다지는 프로그램 International Fair -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각국을 대표하는 부스를 운영하는 행사
파견교환학생 관련 건의사항 또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교환학생 가서 공부에 몰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다른 나라들 여행도 많이 다니고 외국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혼자 여행 가본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남는데요, 많은 경험하시고 후회없는 교환학생 생활 보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파견대학	영국 / 올버햄튼 대학	해외파견대학 전공	경영학과
파견기간	☒ 1학기 ☐ 1년		
학기 시작일	2025/01/19	학기 종료일	2026/05/15
출국일	2025/01/10	귀국일	2026/06/27
1.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수업	이수과목	1학기	Digital Business, English in contexts
		2학기	
	수업방식	수업 후 과제 제출	
	시험방법	과제 대체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한번 수강 신청하면 생각보다 변경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청하세요.	
그 외 활동 (해당되는 경우 작성)	동아리		
	문화프로그램		
	기타		
교내편의시설	도서관		
2. 귀국 준비			
기숙사/숙소 (기숙사참고사항,퇴 실 절차, 납부방법 및 시기)	기숙사에서 짐을 모두 밖으로 뺀 후에 키를 리셉션에 반납하고 서명하면 퇴실 처리됩니다. 리셉션에서 나갈 때 문 열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나갈 때는 키가 없어서 문을 혼자 열 수 없습니다.		
각종 해지 사항 (보험, 은행 등)	귀국 후에도 해외 통신사 해지는 가능하나, 시차 및 현지 소통 문제로 인해 문제 발생 시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국 3일 전에 미리 통신사를 해지하고, 한국 SIM 카드를 로밍하여 귀국 전까지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타참고사항			



3. 소감문 (1페이지로 작성, 맑은 고딕, 10포인트, 왼쪽 정렬)

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캠퍼스, 주변환경 등)	대학 캠퍼스가 전공(공대, 경영 등)에 따라 여러 위치로 나누어져 있어, 본인의 전공에 맞춰 기숙사 위치를 달리 신청해야 합니다. 교환학생 담당 교수님은 메인 캠퍼스인 울버햄튼 캠퍼스에 계시며 수업도 주로 그곳에서 진행되므로, 메인 캠퍼스 중심의 학사 관리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타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더라도 해당 수업 일수가 적고 이동이 가능하다면, 생활 인프라가 더 크고 편리한 메인 캠퍼스 기숙사 생활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숙사 인근 7~8분 거리에는 대형 마트인 아스다(Asda)가 있어 생활이 편리합니다. 도서관 인근 기숙사 기준으로 도보 25분 거리에는 부츠(Boots), 프라이마크(Primark), 파운드랜드(Poundland) 등의 주요 매장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생필품을 구매할 때는 아스다를 방문하기 전에 부츠나 파운드랜드 같은 매장을 먼저 둘러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날씨, 숙소, 식사, 비용(물가) 등에 대한 정보	영국의 날씨는 겨울철 두 달 동안 지속해서 비가 내리며, 여름철에는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 생활해야 합니다. 4월까지의 야간 추위로 인해 전기장판이 필수적이며, 여름철에는 새벽 4시에 일출이 시작되어 밤 10시경에 일몰이 이루어질 정도로 일조 시간 편차가 큼니다. 기후 편차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계절에 맞춘 의류 준비가 필요하며, 현지 물가가 한국보다 3~4배가량 비싸므로 미니 선풍기와 휴대용 우산은 한국에서 미리 구비해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초기 현지 생활 시 기후가 매우 건조하여 구강 및 피부 건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예민한 경우 조이바이(Joybuy) 등의 앱을 통해 3~4만 원대 가습기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소 샤워기가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어 필터 샤워기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타국 여행용으로 사용할 소형 필터 제품만 소량 지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지 외식 비용은 1인당 3만 원에서 6만 원 선으로 높은 편이기에 주로 직접 조리해 먹는 편이 경제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조이바이에 한식 재료가 싸고 다양하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조리 도구(냄비, 프라이팬, 식기 등)는 새로 구매하기 전에 이전 기숙사 거주자가 주방에 남겨둔 물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부족한 품목만 선별하여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정보	<교통 관련 정보> 현지 교통 이용 시 트레인라인(Trainline)과 플릭스버스(FlixBus) 앱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기차표는 가격이 고정되지 않고 탑승일이 가까워질수록 계속 상승하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적어도 이틀 전에서 일주일 전에는 예약하는 것이 저렴합니다. 만 16~25세 이용자라면 기차 요금을 대폭 할인받을 수 있는 '16-25 레일카드(Railcard)'를 필수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현지 기차는 연착과 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당초 계획보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하는 시간대의 기차를 예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버스의 경우 내셔널 익스프레스(National Express)는 운행 편수가 적은 편이지만, 플릭스버스는 운행 시간대가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여 전용 앱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통신 관련 정보> 통신사는 복시(VOXI)를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를 거의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파견 이후 학교 학생 이메일 주소가 발급되었을 때 해당 이메일로 통신사에 등록하면 학생 할인을 적용받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 문화충격 등	현지 도착 당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수건, 여행용 샴푸 및 린스, 그리고 마실 물은 미리 구매하여 기숙사에 입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지 야간 기온이 낮아 4월까지도 전기장판을 유용하게 사용했으므로, 짐을 챙길 때 전기장판을 미리 구비해 오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지 외식 물가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요리법을 몇 가지라도 미리 익혀오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파견교 국제교류부 (진행되는 프로그램, 도움받았던 내용 등)	진행된 프로그램 없었습니다.
파견교환학생 관련 건의사항 또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낯선 환경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처음에는 막막할 수 있지만, 독립심을 기르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예산 관리나 교통편 예약 등 현지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의 인생에 큰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해보지 못할 값진 경험과 현지에서의 특별한 추억들을 가득 쌓을 수 있는 기회이니 꼭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